

# “작업장 악취 모든 고민 끝”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에 위치한 파랑기획(주)은 작업장의 잉크 냄새나 먼지 등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공기청정 시스템을 제작, 보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2007년에는 인쇄업을 비롯해 국내 산업 환경의 개선에 더욱 더 이바지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는 이 회사를 찾아가봤다.

## 잉크 냄새 먹는 하마 ‘상크미’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제작하는 실사출력물 제조회사에서 작업자들이 겪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잉크 냄새다. 특히 솔벤트 잉크처럼 증발성이 강한 경우 장시간에 걸쳐 작업하다 보면 두통과 헛구역질을 동반한다. 이 때문에 작업 시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작업장에서는 방독면까지 착용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가 요구되지만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에서는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필요성을 알면서도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파랑기획이 생산하고 있는 ‘상크미’는 바로 이러한 실사출력 업계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탄생한 공기정화기다. 3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친 이 제품은 온도, 습도 오염도, 기류를 원하는 대로 수동 및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공기청정과 함께 냉·난방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어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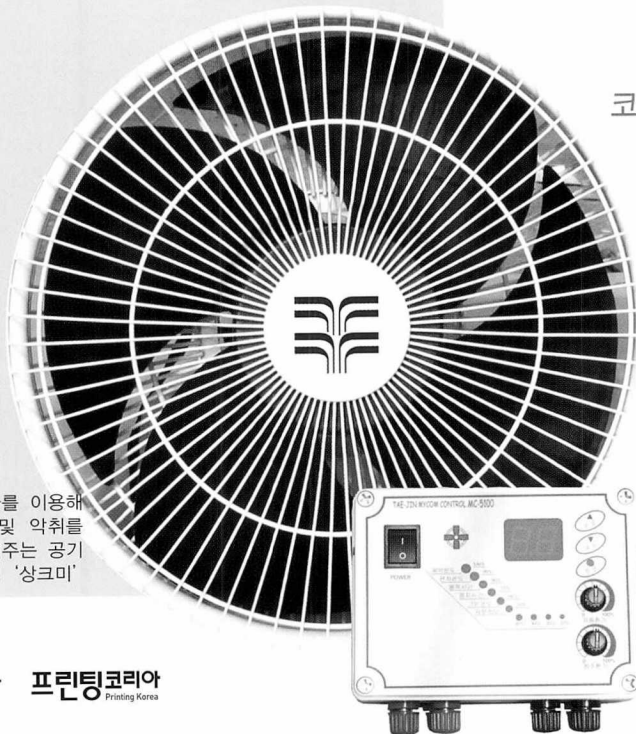
상크미 작동원리의 핵심은 고주파이다. 고주파를 이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 및 악취를 유발하는 성분을 분해해준다. “실사출력업체 뿐만 아니라 인쇄사, 전산실, 사진·아크릴 가공실, 기계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신상철 사장의 설명이다. 작업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세트 만으로도 20~30평 내외의 면적을 커버할 수 있고, 5미터 짜리 대형 실사출력기를 갖춘 곳에서도 2세트 설치만으로 악취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풍량에 비해 소음도 적어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전력 특수모터를 쓰기 때문에 내구성 또한 우수한 것도 장점이다.

## 코사인전 등 대형 전시회에서 위력 발휘

지난해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렸던 코사인전(KOSIGN 2006)은 파랑기획의 공기정화기 제품의 성능을 보여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실사출력 장비업체 전시관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던 태평양홀의 공기정화 시설 책임을 맡았던 것. 전체 면적의 2/3 가량이었지만, 나머지 공간이 실사출력을 하지 않는 소재 업체 부스가 밀집된 곳이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시장 전체를 책임

고주파를 이용해 가스 및 악취를 분해해주는 공기정화기 ‘상크미’





실사출력작업장에 실제 '상크미'를 설치한 모습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전 전시회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실내 공기에 방문객들은 쾌적한 기분으로 관람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 “제품성능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코엑스와 같은 대규모 전시장은 처음이라 솔직히 걱정도 앞섰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자칫 힘들게 쌓아온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고민도 했다고. 그러나 기우였을까. 심지어는 홍보 차원에서 따로 부스를 마련하고 제품을 전시가동 했는데 인근 부스 업체들로부터 “냄새가 없어져 바이어들과 편안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고맙다”는 말까지 건네 들었을 정도였다. 이와 같은 호평이 널리 알려지면서 다른 전시회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린 부산 사인 엑스포에서도 다시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맡았으며, 올해에도 DPG쇼, 코사인전을 비롯한 사인관련 전시회의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

### 작업자 건강증시하는 '친환경 상품 백화점'

과랑기획은 상크미 외에도 2005년 3월부터 미국 알파인 인더스트리에서 개발한 공기정화기를 수입, 공급하고 있다. '닥터 워스'라 불리는 이 정화기는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인증받아 우주선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 필터식 공기청정기의 한계를 극

복한 제품이라는 것이 신사장의 설명이다. 이른바 '천둥번개방식' 원리를 이용한 '닥터 워스'는 천둥과 번개에 의해 발생한 오존과 음이온이 대기 중의 유해물질을 산화, 분해시키는 대자연의 정화기능을 응용한 것으로 미국환경보호청(EPA), 캐나다 표준협회(CSA)에서도 인증을 받았다.

이밖에 레몬 추출액을 주원료로 한 초고속 점착제 거제 '깔끄미'는 일본에 수출되고 있으며, 정전기를 없애주는 '말끄미', 손톱 찌든 때를 제거해 주는 핸드크림 '툼툼이' 등도 틈새시장을 공략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 실사출력업에 종사하며 개발 필요성 느껴

신상철 사장이 공기정화기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때 직접 실사출력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코리아제록스(현 한국후지제록스)에서 기술부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격주 휴무제였던 관계로 처음엔 주말만 되면 여기저기 신나게 놀러 다니는 기분을 만끽했지만 뭔가 허전했다.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평소 관심 분야였던 디자인 관련 공부를 시작했다. 이어 1989년에 과랑기획을 설립했고, 실사출력기 보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인증받은 공기정화기 '닥터 워스'

급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업장에서의 강렬한 솔벤트 냄새는 항상 고민거리였다. 공기청정기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전자, 전산학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기계개발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장차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환경과 관련된 세미나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드디어 2004년 말경에 '상크미' 개발에 성공했다.

업계의 공통 관심거리였기 때문이었을까. 시장의 반응이 좋았다. 출시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상크미'는 실사출력업계에서는 알아주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현재 한화미, A&C, 애드맨, 한울상사, 노루표 페인트, 현대디지털프린팅, 피플컴 등 대형프린터 및 장비 업체들이 모두 과랑기획의 고객사들이다.

### “대리점 확충으로 고객 서비스 강화할 것”

요즈음 신상철 사장은 밀려드는 주문 전화에 즐거운 비명이다. 기자와의 인터뷰 당일도 인터뷰가 끝나기 무섭게 전북 익산의 한 출력업체에 예정되어 있는 설치작업을 위해 출발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모두가 제품이 효과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서부터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란단.

“올해에는 대리점을 1~2군데 정도 확보할 생각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전국을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방 소재 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어 신 사장은 “제품 한 대당 판매마진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라면서 “그래도 업계의 오랜 고민이자 과제였던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 앞으로도 환경 개선을 위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신상철 파랑기획 대표



상호를 비롯해 제품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독특한 한글 이름입니다. 직접 지으신 건가요.

제가 영어 실력이 짝아서요. 농담입니다. 어려운 외래어로 짓는 것보다는 우리말로 만드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친숙

## “이익보다 환경과 작업자 건강이 우선”

하게 들리고 기억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이름만 듣고도 그것이 무슨 제품을 나타내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한 셈이죠. 굳이 어려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는 발음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영어식 이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예컨대 점착제거제인 '깔꼬미'는 '테크니컬'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전반적인 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00%는 아니지만 목표했던 바에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고객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 작업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을 한정된 인원으로 해결하기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이에 올해 안으로 대리점을 몇 군데 확보해 더욱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